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인수 본계약

WSJ, 8월30일 지분 68% 최종인수 ... 인수금액 3조3500억원으로 조정

포스코(대표 정준양·최종태)가 대우인터네셔널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WSJ은 포스코가 대우인터네셔널 지분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8월26일 보도했다.

자산관리공사, 채권단, 포스코 등의 말을 인용해 안정적인 원료 조달, 사업 다각화를 위해 포스코가 대우인터네셔널 지분 68% 인수에 대한 최종 계약을 8월30일에 체결한다고 전했다.

인수금액은 3조3천500억원으로 입찰 당시 제시했던 3조4600억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가격 조정은 입찰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자산 가치 하락과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통한 관계자는 말했다.

최종 인수금액은 현재 시장가격에 52%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포스코는 대우인터네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지분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6>